

## 여수박람회 93일 대장정 마무리

### 해양·생명 공존 담은 '여수선언' 채택후 어제 폐막식

다도해의 아름다움으로 세계인의 가슴을 적신 여수세계박람회가 12일 93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관련기사 2면>

이날 박람회는 800만명이 넘는 관람객에게 바다와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줬고, 국토 남단의 작은 도시 여수가 해양 관광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는 토대를 마련했다.

박람회 조직위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엑스포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BIE(국제박람회기구)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 강동석 여수박람회조직위원장, 박준영

전남지사, 김충석 여수시장 등 각계 인사와 여수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막식을 열었다.

이날 폐막식은 1부 의식행사, 2부 문화행사 등으로 나눠 진행됐고, 참가국 및 참가 국제기구 기수단 입장, 강동석 조직위원장과 페르디난도 나기 BIE의장 인사말, BIE기 반환식 등의 순서로 펼쳐졌다.

또 여수박람회의 유채부터 폐막까지 전 과정을 기록한 '93일간의 기억' 영상물 방영, 참가국 상설공연팀과 한국전통공연팀의 합동공연 '세계가 하나되어'를 선보였다.

김황식 총리는 폐회사를 통해 "이번 박람회는 기후변화, 자원고갈, 식량난, 환경문제와 같은 범지구적인 도전에 직면한 인류에게 바다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많은 일깨워 주는 계

기가 됐다"며 "인류는 소모적 해양개발을 중단하고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나서 21세기 신(新)해양시대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직위 강동석 위원장은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성원해주신 대한민국 국민과 여수시민, 운영요원과 자원봉사자, 참가국가와 국제기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폐막식에 앞서 BIE 페르디난도 나기 의장과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이번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여수시에 금메달을 수여했다. 나기 의장은 "BIE는 여수박람회를 훌륭하게 개최하고 세계의 시민들에게 감명을 준 여수시의 지도자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반기문 총장도 폐막식에 앞서 열린

'여수선언 포럼'에서 "여수박람회의 유산으로 남을 여수선언은 해양과 생명의 근간인 미래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수선언 포럼을 통해 최종 확정된 '여수선언'은 기후변화로 수물위기에 처한 태평양 섬나라 투발루 윌리 테라비 총리가 낭독했다.

이날 폐막식은 양광라와 아르헨티나 등 2개국 초청 문화공연, 빅오소, 운영요원과 자원봉사자, 참가국가와 국제기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세계박람회를 보지 못한 관람객을 위해 폐막 후에도 박람회장을 철거하지 않고 10일간 가람 완전 재개장한다. 시기는 이달 말께로, 국제관을 제외한 특화시설과 기업관 등을 모두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아쿠아리움은 폐막 후 독립 운영된다.

/여수=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2012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축구 사상 최초로 올림픽 동메달을 획득한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연합뉴스

## 영웅들이 돌아왔다

### 올림픽축구 사상 첫 동메달 대표팀 귀국



태극전사들이 속명의 라이벌 일본을 상대로 한국 올림픽축구의 새 역사를 썼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웨일스 카디프의 밀레니엄 경기장에서 열린 3-4 위전에서 일본을 2-0으로 꺾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1948년 런던올림픽에서 첫 발을 내딛은 뒤 64년 만에 얻은 값진 메달이다. 또 한국은 1968년 멕시코 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일본

에 이어 아시아 국가로는 두 번째로 올림픽 축구에서 메달을 차지하게 됐다. 와일드카드로 홍명보호에 승선한 '말춤' 박주영이 결승골을 넣으며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숙명의 라이벌'이 만난 만큼 초반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됐지만 전반 38분에 터진 박주영의 그림 같은 골에 승부의 추가 기울었다. 후반에서 길게 넘어온 공을 쫓은 박주영이 4명의 수비수를 뚫고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박주영은 전반 막바지 공중볼 다름을 하

다 수비수 팔꿈치에 맞아 얼굴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지만 이후에도 위력적인 움직임으로 일본을 위협했다.

후반 12분, 승부에 썩기를 박은 추가골이 터졌다. 역습상황에서 공을 잡은 구자철이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 일본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이후 승리를 확실한 홍명보 감독이 후반 44분 구자철을 빼고 이번 대회에서 뛰지 못했던 수비수 김기희를 넣으면서 런던으로 향한 18명의 태극전사가 모두 올림픽 무대를 밟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93일간의 대장정을 마감하고 12일 폐막했다. 이날 오후 박람회장 내 엑스포 홀에서 폐막을 알리는 종이 꽃가루가 흩날리는 가운데 박람회 종사자들로 구성된 합창단원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여수=김진수 jeans@kwangju.co.kr

## 굿바이 런던

### 올림픽 폐막 "2016년 리우에서 만나요" 한국 5위

#### 관전기사 3·14·15면

2012년 지구촌의 여름을 뜨겁게 달군 스포츠 대제전이 작별을 고했다. 제30회 런던 하계올림픽이 16일간의 열전을 끝내고 12일(현지시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한국은 대회 첫날부터 벌어진 박태환의 실격소동에 이어 신아람의 '말춤' 박주영이 결승골을 넣으며 승리의 주인공이 됐고, 남자 축구 대표팀도 올림픽 축구 사상 첫 메달을 목에 걸었다. '10-10'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

사격의 김종오가 한국의 첫 메달과 10번째 메달을 명증시켰고, 양궁 기보배도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2관왕

에 올랐다. 오심 논란이 빚졌던 펜싱도 눈물과 감동의 드라마를 동시에 쓰며 2개의 금메달을 안겨줬다. 1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던 베이징의 영광재현에 성공한 태극전사들을 새로운 올림픽 기록도 쏟아냈다. '도마의 신' 양학선이 한국 체조 사상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고, 남자 축구 대표팀도 올림픽 축구 사상 첫 메달에 성공했다. 펜싱의 금메달도 한국의 올림픽 역사에서 최첨단.

북한 역시 1992년 바르셀로나에서 만든 역대 최다인 4개의 금메달과 동물을 이루며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런던 올림픽은 여성 스포츠 역사의

#### 2012 런던올림픽 메달 현황

순위	국가	금	은	동	합계
1	미국	44	29	29	102
2	중국	38	27	22	87
3	영국	28	15	19	62
4	러시아	21	25	32	78
5	대한민국	13	7	7	27
6	독일	11	19	14	44
7	프랑스	10	11	12	33
8	이탈리아	8	7	8	23
9	헝가리	8	4	5	17
10	호주	7	16	12	35
19	북한	4	0	2	6

\*2008 베이징올림픽 한국성적 종합 7위(금 13, 은 10, 동 8) /연합뉴스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번 올림픽에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브루나이가 처음으로 여자 선수를 파견했고, 여자 복싱도 첫 공을 울렸다.

한편 16일간 런던 올림픽 스타디움을 지켰던 성화는 4년 뒤인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여름을 밝히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

## 금호석화·아시아나 연말 워크아웃 졸업 금호타이어·금호산업도 경영 정상화 재검열

금호석화학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말 채권단 관리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금호타이어는 내년, 금호산업은 2014년 졸업을 목표로 정상화 작업을 하고 있다.

10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석화와 아시아나는 구

조정정을 추진한 지 3년째인 올해 말 채권단 관리에서 벗어나 정상 기업으로 회생할 전망이다.

금호석화와 아시아나는 지난 2010년 초 채권단과 2년 기한으로 자율협약을 맺고 구조조정의 길로 들어섰다. 기한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해 자산 매각과 실적 개선에 나섰다.

워크아웃 중인 금호타이어는 내년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은 "올해 상반기만큼 영업역량을 발휘한다면 내년 상반기 워크아웃 졸업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호산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해 말 감사(자본감소)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신대학교 신입생모집**

2013학년도 학부 수시 1차  
 원서접수: 8월 20일~ 9월 11일

2012학년도 후기 대학원  
 원서접수: 8월 6일~ 8월 20일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4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5

광신대학교



## 한국 축구 올림픽 사상 첫번째 '동메달' 획득

한국축구 2012런던하계올림픽 동메달 획득을 온 국민과 함께 고구려대학과 북경당한의원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